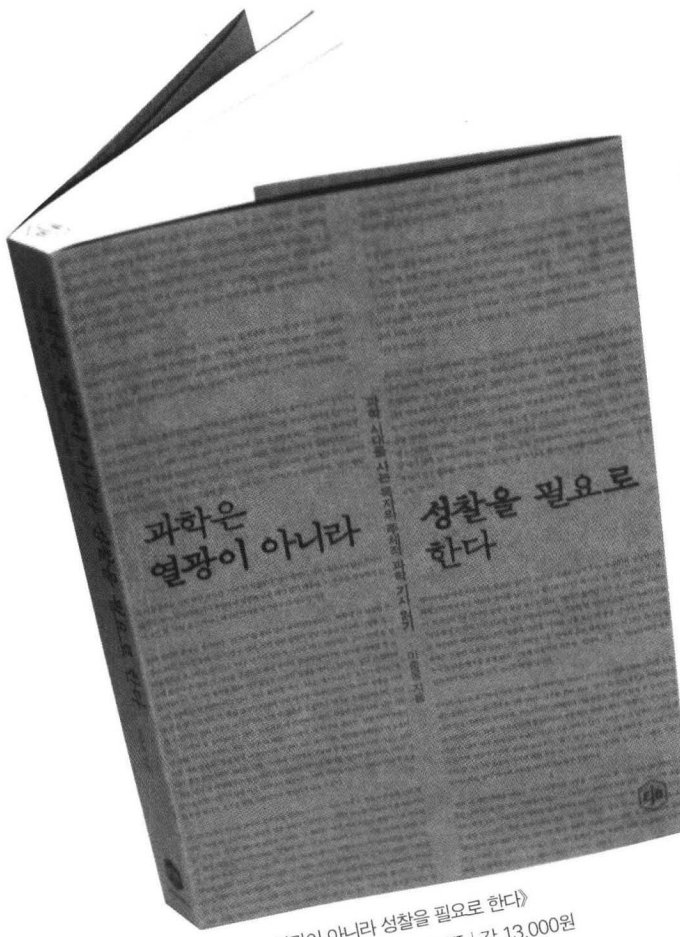


과학기사 과편 속에서 '이야기'를 읽어내다

김성준



《과학은 열광이 아니라 성찰을 필요로 한다》
이충웅 지음 | 이제이북스 | 276쪽 | 값 13,000원

●이 글을 쓴 김성준은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 협동과정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숭실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과학사' '한국과학사'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를 강의했다. 동아시아과학사, 특히 한국현대과학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다.

‘현대사회에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가 넘쳐난다’라는 말은 사실 진부한 지적일 수 있다. 현대사회의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와 그 사회적 유통에 대한 조금 더 최신의, 의미심장한 현상을 지적하자면 ‘과학기술이 언론을 의식하고 이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언론에 의해 수동적으로 보도되는 ‘실험실 속의 고독한 수행자’들이 아니다. 때로는 자기 연구의 사회적 효용을 알리고 명예를 얻기 위해, 혹은 이를 통해 자기 연구의 더 좋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은 언론매체 앞에 더 이상 ‘쑥맥’이 아닌 ‘프로페셔널 인터뷰이(professional interviewee)’로 거듭나고 있다.

과학기술 정보생산자가 매체를 의식하고 이용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정보의 소비자인 일반대중이 수동적인 수용자로만 남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일 수 없다. 《과학은 열광이 아니라 성찰을 필요로 한다》의 출간은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이 책의 부제는 ‘과학시대를 사는 독자의 주체적 과학기사 읽기’이다. 과학기술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매개체인 과학기사는 대중을 대상으로 일방향적으로 주입됨으로써 ‘대중화’될 것이 아니라, 대중도 적극적인 주체가 된 상황에서 서로간에 소통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며 책의 목적이다. 이는 권위적 과학지식 앞에서의 ‘상식’의 권리주장이며, 심도 있는 차원에서의 ‘과학’과 ‘논리’의 회복이라 할 만한 것이다.

나는 이 책을 과학기사의 과편 속에서 ‘이야기’를 읽어내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으로 읽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과학이야기’와 ‘인문학이야기’를 가리지 않고, 비판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기에 이르고 있으며, 기존의 이야기를 해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데까지 도달하고 있다. 이 책의 전략에 설득되고 교육된 독자라면, 책을 다 읽은 후에 저자와 같은 방식으로 과학기사에서 ‘이야기’를 읽어내고픈 충동을 느낄 것이다.

저자가 활용하고 있는 전략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신문의 과학기사에 대한 비판적 해체이다. 《장자(莊子)》에 나오는 ‘포정(庖丁)’ 처럼, 저자의 칼 앞에서 과학기사의 잘 가공된 외피가 벗겨지고 때로는 왜곡되고 과장된 구조가 드러난다. 저자의 분석을 관찰하면서 독자는 ‘감히’ 스스로 과학기사의 ‘신성한 영역’에 도전하도록 자극받고 교육받을 수 있다.

과학기사 생산의 주체인 과학자와 과학자라도 이 책을 읽을 만하다. 이 책의 부제를 ‘과학기사 제대로 쓰기’라고 해도 좋을

만큼 책 속에는 기존의 신문 과학기사에 대한 비판적 언급과 따끔한 충고가 가득하고 분석의 수준은 심층적이다. 과학이라는 권위를 걸치고 있는 과학기사 중의 상당수가 취약한 논리구조를 갖고 있고, 성급한 수사적 정당화를 동원하고 있음을 저자는 분석하고 폭로한다. 그러나 여기서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무기'는 '더 권위 있는 과학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논리'와 '상식'이다. 마치 '포경'의 칼이 오랫동안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평범한 칼이었던 것과 같다. 예를 들어 황우석 교수의 '광우병 안 걸리는 소'에 대한 국민적 열광에 관해 저자는 이렇게 간단히 말한다. "유전자 조작 콩은 불안해하고 의심하던 국민들이 '광우병에 안 걸리는 소'는 낙관하고 믿어주는 듯했다."

저자는 기존의 이야기를 해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과학기사(혹은 우리 사회 과학담론)의 오류, 왜곡, 과장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선다. 저자의 '주체적 과학기사 읽기'는 '비판적 읽기' 이상인 까닭이다. 저자는 자신이 해체한 과학기사의 파편을 다시 기우고 거기에 '문화'의 외피를 입힌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남은 것은 단지 '과학기사'의 단편이 아니다.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과학기사는 인문적 성찰을 얻을 수 있는 재료로 거듭난다.

예를 들어 '애기장대'라는 식물은, 동물학과 곤충학에서 실험대상으로 자주 쓰이는 쥐나 초파리처럼, 식물유전학과 생화학적 연구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식물이다. 왜냐하면 애기장대의 크기가 작고 1세대 기간이 짧으며, 화학물질 등으로 돌연변이를 비교적 쉽게 유발할 수 있다는 성질이 실험대상으로 사용하기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렇게 '실험대상에 불과한' 애기장대에 대해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주목하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저자의 주목에 의해, 애기장대 이야기는 단편적인 '과학상식'을 넘어 과학과 자연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담은 '인문학이야기'로 변화한다.

저자는 또한 이 책 속의 많은 예들을 통해 '과학이야기'가 과학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야한 기술낙관론으로 가득한 '미래예측보고서'를 논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글을 맺는다. "미래를 혼자 꿈꾸는 것과 타인에게 '공표'하는 일의 '간극'은 꽤 크다. 공표하는 순간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문제가 된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그 관계의 폭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관계의 문제는 사회에서의 '권력' 문제와 깊이 연관

돼 있기 때문에, '예측'의 공포는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종종 그것은 선전과 선동의 수단이 된다. 혹은 현실을 잇는 '마취제'일 때가 있다. 거기서 '소외'는 일어난다."

과학기술이 미래의 꿈과 연관되지만, 그 꿈이 사회화될 때는 사회적 권력의 구조와 불가피하게 관련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과학기술의 꿈은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가지는 독특한 맥락과도 관련이 있다. 저자는 한국에서 '근대'가 과학기술에 대한 독특한 '열등감'을 만들어냈으며, 이 열등감이 과학기술에 대한 '열망'을, 그리고 '열광'을 만들어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열망'과 '열광'은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발전을 향한 열망과 열광'이었다.

이 책에서 제시된 '주체적 과학읽기'는 한국사회에 결여된 '대중의 과학읽기' '대중의 과학담론'이 가능해지도록 할 수 있다. 그것은 '과학자들의 과학읽기' '과학자들의 과학담론'과는 또 다른 영역이다. 그리고 저자는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참여'도 명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을 읽을 독자의 입장으로 돌아와보자. 사실 이 책은 마냥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니다. 저자 자신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 매체에 소개된 과학기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동일한 내용에 대해 여러 신문 기사를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거쳤다. 얼마나 많은 독자들이 저자를 전범으로 삼아 이러한 심층적인 분석을 일상적으로 행하게 될 것인가? 저자는 "특정 과학과 기술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기본적인 '착상'과 '가치 판단'을, 관심을 기울이기만 한다면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자의 분석방법은 자신이 훈련받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바탕하고 있고, 그것 역시 훈련과 학습을 요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의 말미에 있는, 이미 알고 있으나 잊기 쉬운 '팁'은 그런 이유로 실린, 독자를 위한 배려로 보인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논리'와 '상식'을 갖기 위해서도 '노력'과 '훈련'이라는 덕목은 요구된다. 그러나, 이 책의 독파에 성공하고 주체적인 과학읽기에 어느 정도 '감'을 잡은 독자들은 신문의 과학 기사를 읽을 때마다 기사의 논리구조를 따져보고 분석해 보는, 이미 자기 자신에게 내재된 교육효과를 체험할 것으로 확신한다. **김민준**